

하타다 다카시가 본 제주도

고길희*

<차례>

- I. 머리말
- II. 하타다의 『원구』로 본 제주도
- III. 『원구』 너머의 제주도
- IV. 맺음말

국문요약

하타다 다카시는 전후 조선사 연구의 선구자로서 일본인의 조선관을 개선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빛을 갠고자 노력했으며, 전후 일본의 조선사 연구와 조선사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이 연구는 하타다가 제주도를 어떻게 보았는가를 그의 저서 『원구(元寇)』(1965)에 초점을 맞춰 고찰한 것으로,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구』의 내용을 중심으로 삼별초의 항쟁과 제주도에 관한 기술 내용을 개관하면서 『원구』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하타다가 왜 항몽순의비 앞에서 합장을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제주 사람들에게 삼별초의 항쟁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고, 하타다의 제주도 인식의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셋째, 하타다가 전후 일본에서 조선사 연구와 조선사교육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제주도 역사가 한·일 두 나라는 물론 세계 역사·평화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과제를 모색할 것이다.

이상의 작업을 통해 제주도라는 지역사로부터 한·일 두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 야마가타 대학, 준교수, 교육학

게 조명하고, 제주도가 한·일 두 나라는 물론 세계 역사·평화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 과제를 찾아가는 실마리를 던져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하타다 다카시, 원구, 삼별초, 제주도, 역사·평화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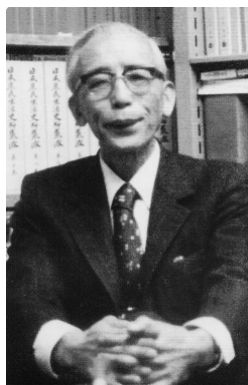
I. 머리말

하타다 다카시(旗田巍: 1908~94)는 누구인가? 전후 일본에서 조선사 연구의 선구자로서 일본인의 조선관 개선을 위해 힘쓴 인물로, 한 때 ‘기전외’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관심을 가진 한국 지식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은 일본인이다(고길희 2001, 2005). 하지만 지금은 한일관계 또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이는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또 그를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조선에서 태어나 자란 ‘재조(在朝)일본인 2세’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그의 경력을 잠시 살펴보자. 하타다는 1908년에 식민지 조선의 마산에서 태어나 마산소학교와 부산중학교까지의 17년간을 조선에서 ‘식민자 2세’로 군림하며 생활했다. 그리고 구마모토 제5고를 거쳐 동경제국대학 문학부 동양사학과에서 공부한 뒤, 일본인의 조선사 왜곡과 식민지 조선 지배 합리화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한 동양사학계와, 일제의 대륙 침략의 두뇌집단인 만철조사부에서 일했다. 이렇게 하타다는 인생의 절반인 40여년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조선 지배와 대륙 침략에 보조를 맞추기라도 하듯 조선과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생활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1948년 일본으로 돌아온 그가 새로운 조선사 연

구의 선구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계기가 된 것은 그가 한국 전쟁 중에 쓴 『조선사(朝鮮史)』(1951)였다. 하타다는 이 책에서 전전(戰前)의 조선사 연구를 비판하며 새로운 조선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았다. 이어서 그는 ‘조선사연구회’의 창립(1959)을 위해 노력했고, 새로운 조선사 연구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에 ‘고마쓰가와(小松川)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되어 사형선고



만년의 하타다 다카시

를 받게 된 재일교포 2세 이진우 소년의 구명운동(1960~62)에 앞장서게 된 하타다는 일본인의 조선관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고길희 2001, 2005). 이것을 계기로 하타다는 일본인의 조선관을 개선하기 위해 『원구(元寇)』(1965)와 『일본인의 조선관(日本人の朝鮮觀)』(1969) 등을 집필하는 한편, 역사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朝鮮の歴史をどう教えるか)』(편수 대표, 1976)를 출간한다.

또 조선사연구회 회장과 조선장학회 이사를 맡아 일하기도 했던 그는 늘 사상과 민족과 국가를 넘어 교류할 것을 주장했다. 그 당시 일본에는 북한을 지지하는 지식인들이 많았던 시기로 누구보다도 먼저 한국에 눈을 돌려 한일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렇게 하타다는 남은 인생의 반을 전후 조선사 연구의 선구자로서 조선에 대한 빛을 갠고자 노력했다.

그런 하타다가 제주도를 어떤 관점에서 보았는가? 이 연구는 하타다의 『원구(元寇)』(1965)에 초점을 맞춰 그가 제주도를 어떻게 생각하였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전후 일본의 조선사 연구 혹은

조선사교육에서 제주도가 어떻게 인식되었는가를 엿보는 일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하타다가 왜 제주도 ‘항몽순의비’ 앞에서 합장을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의 삼별초와 제주도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짚어보고, 제주도라는 지역사를 토대로 한·일 두 나라는 물론 세계의 역사·평화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가능성을 모색해볼 것이다.

II. 하타다의 『원구』로 본 제주도

1. 하타다와 『원구』

하타다는 전후 일본에서 누구보다도 일찍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 지식인들과 교류를 한 인물이다. 노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 하타다는 제주도를 방문해 ‘항몽순의비(抗蒙殉義碑)’ 앞에서 합장을 했다.



이 ‘항몽순의비’는 박정희 대통령이 삼별초의 호국정신을 높이 평가해 옛 성터에 세운 것으로, 1977년에 착공해 1978년에 준공되었다.¹⁾ 하타

1) ‘항몽순의비 제막식’(출처: 대한뉴스 제1188호), 1978년 6월 9일.
http://film.ktv.go.kr/pop/movie_pop.jsp?gbn=DH&mediadtl=20843&mediaid=10162&page=2&quality=W&srcgbn=KV 참조.

다는 왜 그곳까지 찾아가 합장을 한 것일까? 그 이유는 하타다가 1965년에 집필한 『원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는 삼별초의 마지막 거점으로, 『원구』를 집필한 하타다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에 하타다는 『조선사(朝鮮史)』(岩波全書)를 간행해 한·일 두 나라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길희 2001, 2005, 2009). 이 책의 제4장 제6절은 ‘몽골 침략과 왜구’로, 몽골의 침략과 고려의 변화를 기술하고 있다. 그 속에서 삼별초에 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이 무렵 삼별초라고 하는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 남해의 여러 섬을 점령하고, 몽골·고려 관군과 싸웠을 때 한반도 남쪽 지역의 농민들은 이에 호응하여 봉기했는데, 그것은 원의 과대한 요구에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旗田 1951: 97~98).

하타다는 『조선사』에서 삼별초에 관한 짧은 기술을 하고 있는데 삼별초의 마지막 항거지인 제주도에 대한 기술은 없다. 전체적인 내용도 삼별초의 항쟁보다는 고려 왕권의 무력함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1951년 당시 조선사 연구가 아직 전전의 연구 성과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서 오는 문제였다.

그 뒤 하타다는 ‘조선사연구회’(1959년 창립)에서 활동해가며 1965년에 『원구』를 간행한다. 여기서 하타다는 몽골 침략과 관련해 삼별초의 항쟁을 상세히 기술하게 되면서 제주도도 언급하게 된다. 당시 하타다의 『원구』는 일본 학생들의 왜곡된 조선관을 개선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던 일본 현장 교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책으로, 다음과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

첫째, 베트남 전쟁의 영향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계기

로 미국을 ‘제2의 원구’로 인식하면서 다시 한 번 연대해 투쟁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타다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원구』의 제6장에서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저항’이란 제목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저항을 서술하고 있다.

둘째, 당시 일본사회에 조선인에 대한 편견이 심각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가정과 매스컴은 물론 그 영향을 받은 학생들의 편견 또한 심각해서 교육현장에서 의식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의 조선인에 대한 편견을 개선할 길은 없었다. 하타다는 1960년부터 1962년에 걸쳐 재일교포 2세였던 이진우 소년의 구명운동에 참여하는데, 그 속에서 일본인의 조선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통감했다. 그래서 하타다는 조선사 연구를 통해 왜곡된 조선관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밝히고, 나아가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조선사를 그리고자 했다.

하타다는 『원구』를 집필한 이유를 ‘머리말’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특히 원구는 두 번에 걸친 몽골의 일본 침공이 태풍으로 인해 실패했다는 점을 들어 가미카제(神風)사관을 이끌어내었고, 나아가 신국불패(神國不敗)와 전쟁구가의 관념을 일본 국민들에게 심어주는데 이용되었다. 또한 원구는 일본인들에게 외국과 외국인에 대한 배타의식을 고취시키는 구실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지금 내가 원구를 쓰는 것은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나는 몽골제국이 의도한 일본 침공이 몽골 지배하에 있었던 아시아 여러 민족 특히 조선인 그리고 중국인과 베트남인이 저항을 했으며, 그것이 일본 침략 계획을 늦추고 좌절시키는 주요한 힘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가며 일본과 아시아의 연대를 생각하고자 했다(旗田 1965: 머리말).

이처럼 하타다는 전전의 가미카제(神風)사관과 아시아 여러 민족에

대한 일본인의 배타주의를 개선하고, 원구에 대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저항의 역사를 밝혀 아시아 연대의 중요성을 알리려 했다. 전후에도 여전히 원구는 일본 역사에서 대사건으로 취급되었고, 원구 퇴치는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자긍심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강했다. 이에 대해 하타다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원이 침략한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중국은 약 100년간 원의 영토가 되었다. 조선도 일본이 몽골에 침략을 받기에 앞서 수십 년에 걸쳐 침략을 받았고, 그 후 원의 지배로 고통을 당했다. 다른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원의 침략을 받고 심한 압박에 고통을 받았다. 이런 여러 나라의 피해는 일본의 피해와 비교하자면 상당히 컸다. 일본의 피해는 아주 적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역사에서 원구는 중대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원구를 물리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침략을 받아 심한 고통을 받은 나라들의 일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旗田 1965: 2~3).

이어서 하타다는 이렇게 강조했다.

게다가 일본의 피해가 그 정도로 끝난 것은 단순히 가마쿠라 무사의 분투와 ‘가미카제’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그것들은 간과할 수 없는 큰 힘이었지만, 그 외에도 침략을 심하게 당한 여러 나라 민중의 원에 대한 저항운동이 원의 일본 정복을 저해한 중요한 원인이었다. 당시 원의 지배는 아시아 전역에 걸쳐 있었다. 따라서 한 나라나 한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은 아시아 전체의 움직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략) 원이 일본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주변 국가의 원에 대한 저항 운동 때문이었다. (중략) 원에 정복을 당한 아시아 여러 민족들은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원에 저항했다. 이런 상황이 원이 일본을 침략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이 정복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지고 단순히 일본만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다른 나라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旗田 1965: 3).

하타다는 이렇게 전전과 전후로 이어진 원구에 대한 일본인의 역사인식을 비판하고,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저항의 역사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물론 전후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가미카제사관은 사라졌다. 그러나 고려가 원군의 길잡이가 되어 원군과 함께 일본을 침략했다는 ‘고려 길잡이론’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고, 교과서 가운데는 ‘원·고려연합군’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고려도 원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침략한 적이라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었다(旗田 1983: 147). 하타다는 이러한 잘못된 역사관을 개선하기 위해 『원구』에서 몽골에 대한 삼별초의 항쟁을 중국이나 베트남의 저항에 비해 아주 상세히 기술했던 것이다.

2. 『원구』에 나타난 제주도

한편, 『원구』에서 제주도가 등장하는 것은 1271년 5월 진도가 함락된 뒤 삼별초가 본거지를 탐라(제주도)로 옮겨 항전체제를 정비했다는 부분이다(旗田 1965: 101). 하타다는 삼별초가 제주도를 거점으로 활발히 투쟁하는 모습을 기술하며 이렇게 적고 있다.

아시아에서 원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것은 일본이고, 끊임없이 반항하며 반격을 가했던 것은 탐라(제주도)에 근거를 둔 삼별초였다. 그러한 삼별초는 원이 일본을 굴복시키는데 중요한 장애였다.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삼별초를 토벌하는 것이 선결이었다.

몽골은 일찍부터 탐라에 주목하고 있었다. 1268년 몽골은 고려에 병선 1,000척의 건조를 명령했는데 그 중의 100척은 탐라에서 만들라고 했다. 다음해에는 일본으로 가는 선로를 탐색하기 위해 탐라를 염탐하는 사자를

보낸 일이 있었다. 몽골은 탐라의 군사적 중요성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탐라가 반몽항전의 근거지가 된 것은 몽골에게 중대한 일이었다(旗田 1965: 104).

이렇게 하타다는 제주도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하타다는 제주도에 반몽항전을 벌이는 삼별초가 근거지를 두게 된 것을 원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일본 원정에 장애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몽골다는 제주도에 반기에 앞서 제주도의 삼별초를 토벌해가는 과정을 기술했다.

1272년 5월 원은 일본과 탐라 정벌을 위한 일을 논의했다. 우선 탐라를 조유(招諭, 불러서 타이름)하라고 했다. (중략) 같은 해 11월 원의 수도에서는 다시 일본과 탐라를 놓고 논의를 했는데 일본을 정복하기 전에 탐라를 정벌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중략) 1273년 정월 원은 2월이나 3월에 탐라를 정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월 원과 고려의 군대는 탐라를 향해 남하를 개시했다. (중략) 4월 하순 탐라를 쳐들어갔다. 격전 끝에 내성과 외성 모두 함락되어 삼별초는 패배했다.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봉기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약 3년이 걸렸다. 농민과 노예의 지지를 받아 몽골과 고려를 상대로 투쟁한 삼별초는 여기서 패배했다(旗田 1965: 104~105).

이렇게 하타다는 제주도를 근거지로 투쟁한 삼별초의 항쟁을 기술한 뒤 삼별초를 ‘반역자’라고 기술한 고려의 왕정사관을 비판했다. 그리고 삼별초가 몽골의 일본 원정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삼별초는 몽골의 일본 침략을 저지한 용사였다. 이 항쟁이 없었더라면 몽골은 좀 더 빨리 일본으로 출병해왔을 게 틀림없다. 일본 원정을 위한 둔전군(屯田軍)²⁾은 삼별초로 인해 고정되어 삼별초

토벌에 전용되지 않을 수 없었다. 삼별초의 항쟁이 없었더라면 몽골은 예정된 계획에 따라 좀 더 일찍 일본을 습격했을 것이다(旗田 1965: 106).

이렇게 하타다는 삼별초의 저항이 있었기에 몽골의 일본 침공이 늦어졌다고 하며 ‘삼별초는 몽골의 일본 침략을 저지한 용사’라고 평가했다. 하타다는 일본 원정에 반대해 싸운 아시아 여러 지역의 민중을 일본의 은인으로 생각한 것이다.(旗田 1965: 6). 이러한 시각은 전후에도 여전히 ‘폭풍우(暴風雨)’를 ‘가미카제(神風)’라며 일본인에게 우월의식을 심어주며 아시아 여러 민족에 대한 차별의식을 부추기는 역사관에 대한 강한 비판임과 동시에, 역사적인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투쟁하는 조선인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기도 했다.

하타다는 조선사학자로서 일본인의 조선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선사 연구는 물론 조선사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조선사 교육자들과 교류하기 시작했고, 1976년에는 편수 대표로 『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간행했다(旗田 1976).³⁾ 이 책에는 하타다의 『원구』의 관점을 반영한 후지노 다츠요시(藤野達善)의 『아시아적 시점에서 ‘원구’를 가르치고』라는 실천사례가 들어있다(旗田 1976). 이렇게 1965년에 출판된 하타다의 『원구』는 무엇보다도 당시 현장에서 학생들의 왜곡된 조선관을 시정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던 현장교사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2) 고려시대 변경이나 군사요지에 설치해 군량을 충당하게 만든 둔전토지를 경작했던 군대로, 평상시에는 경작을 맡아 군량을 마련하다가 전시(戰時)에는 군인이 되었다.

3) 編修代表 旗田巍, 朝鮮史研究會編(1976) 『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朝鮮の歴史をどう教えるか)』(龍溪書舍)는 출간 이후 조선사교육의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역사학 연구의 발전과 한일관계의 변화 속에서 그 한계도 드러났다. 그런 점에서 최근 90년대부터 한국 역사교사들과 교류를 계속해온 일본 ‘한일교육실천연구회’에서는 이 책을 재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하타다의 『원구』는 조선인을 비롯한 아시아인의 저항을 그리는데 초점을 맞췄던 만큼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고려인의 몽골의 침략에 30년간 저항했다는 것과 강화 이후 원의 지배 80년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몽골군 최초의 침략을 받은 1231년 이래 고려는 30년 넘게 고통을 받았고, 그 뒤 80년은 원에 의해 구축된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고려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30년의 저항과 그 뒤 80년은 고려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크게 변화시켰던 것이다(金陸勳 2006). 이는 제주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는 제주도에는 작지만 일 잘하는 조랑말을 제외하고는 몽골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司馬 2009: 176~177). 과연 그럴까? 삼별초의 항쟁에만 국한하지 말고 몽골이 제주도인의 삶과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다각적이고 총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둘째, 몽골제국주의를 침략자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유럽이나 소련에서는 몽골의 침략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기술했다. 그러나 당시 몽골제국은 세계질서를 바꿀 정도로 강대한 것이었고, ‘상업제국몽골’로서 동아시아의 상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원구』에는 당시 몽골제국의 민중들이 세계 지배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러야했고, 또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에 관한 기술이 전혀 없다. 그런 점에서 몽골제국의 역사를 새롭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藤塚 2006). 이는 제주도에서 삼별초의 항쟁과 함께 몽골제국을 어떤 관점에서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셋째, 제주도 사람들에게 삼별초의 항쟁이 가지는 의미를 조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시 삼별초군이 제주도에 들어온 것은 제주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침략일 수도 있었다. 삼별초군은 척박한 제주도

땅에서 배고픈 사람들로부터 삶의 터전을 빼앗았고, 삼별초군이 들어옴으로써 제주도 사람들은 몽골에게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했다. 그러한 제주도 사람들이 과연 삼별초의 항쟁을 민족수난의 극복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타다의 『원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한계는 하타다 개인의 것이 아니라 60년대 일본 역사학 연구의 한계로, 그 연구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타다가 1965년의 『원구』에 이어 1969년에 『일본인의 조선관(日本人の朝鮮觀)』(旗田 1969; 이기동역 1983)을 간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구』는 일본인의 왜곡된 조선관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탄생했고 실제로 그에 크게 공헌했다는 점을 평가해야 한다.

지금까지 1965년의 『원구』를 중심으로 하타다가 본 제주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하타다의 『원구』만으로 제주도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럼에도 하타다가 본 제주도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타다는 전후 일본에서 조선사 연구의 선구자로서, 그가 제주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는 일본의 조선사 연구와 조선사 교육에서 제주도를 어떻게 인식해왔는가를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때문이다.

Ⅲ. 『원구』 너머의 제주도

1. 하타다와 ‘항몽순의비’

여기서 하타다가 제주도 ‘항몽순의비’를 찾아가 합장한 사진으로 되돌아가보자.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타다에게 제주도는 삼별초의 저항을 상징시키는 땅이었다. 하타다는 조선사학자로서 외세에 저항하는 ‘조선인’

의 모습에 감탄을 했고, 그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⁴⁾ 1992년 노년의 하타다는 한 대답에서 ‘조선민족은 막상 위기의 상황에 빠지면 끝까지 싸운다’(旗田 1992: 17)며, 제주도 항몽유적지를 다음과 같이 자랑스럽게 언급했다.

제주도에는 마지막까지 싸운 삼별초 자료관도 생겼습니다. 저항 유적이 라고 해서 토성이 남아있고, 자료관은 그 안쪽에 세워져 있습니다(旗田 1992: 13).

이렇게 하타다에게 제주도는 저항의 땅이었다. 이는 『순이 삼촌』(1979)의 작가 현기영이 말하는 제주도를 연상케 한다.

옛날부터 이 섬의 주민들은 모두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이 강했다. 척박한 야생초지에 서로 뒤엎힌 뿌리들처럼 상호부조로 촘촘히 얹혀 결속된 이 공동체에게는 옛날부터 두 종류의 외세가 존재했다. 연달아서 이 섬을 침략해온 이민족인 몽골, 왜구, 제국주의 프랑스, 제국주의 일본만이 아니라, 일체 베푸는 일 없이 뺏어가기만 하는 중앙왕권도 외세로 파악되었다. (중략) 옛날부터 제주도에서는 진상과 병역의 가혹한 의무를 부담케 하고는 심각한 차별정책을 펼치는 중앙왕권에 반대하는 크고 작은 저항운동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玄基榮 2010: 30).

그렇다. 현기영이 지적하고 있듯이 제주도인에게 외세는 이민족만이 아니라 중앙왕권도 마찬가지였다. 하타다가 『원구』에서 고려의 국왕을 비롯한 지배자들이 원의 협력자나 앞잡이가 되었음에도 병사와 농민과 같은 고려의 민중들은 최후까지 싸웠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처럼(旗田

4) 하타다는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저항하는 조선인의 모습을 통해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조선사를 그리고자 했다. 그 속에서 노년에는 최치원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다.

1965: 6). 그러나 민중의 역사를 그리고자 했던 하타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항몽순의비’ 앞에서 합장을 한 사진은 역시 위화감을 갖게 한다. 이 사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하타다는 『원구』에서 몽골군과 고려왕권에 저항하는 고려민중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일본인에게 조선인의 저항적이며 주체적인 역사를 제시하고 왜곡된 조선사관을 개선하고자 했다. 그러한 목적의식이 너무 앞선 바람에 삼별초의 항쟁을 과대평가한 것은 아닐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제주도 사람들에게 삼별초의 공적을 기리는 ‘항몽순의비’에 대한 생각은 하타다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다. 현길언의 『不妊時代』의 ‘해설’에서 오생근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때때로 역사적 사실은 <국난극복의 국민정신 함양이란 대의명분>으로 유신이념을 합리화시키는 방편이 되었고,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국민의 이성적 비판력을 마비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삼별초의 난>은 그런 점에서 권력의 이용가치가 높은 역사적 사건이다. (중략) 이 사건을 앞에 두고, <과연 삼별초가 순수한 민족의식에서 몽고에 저항하기 위해 제주도에 입거하였는가, 아니면 정치적인 파벌세력간의 권력싸움에서 밀려나 어쩔 수 없이 내려 올 수 밖에 없었는가>의 문제는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였지만, 후자의 논의는 무시된 채, 삼별초군의 저항의식을 되살려 민족주의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목적으로 항몽순의비를 건립하자는 기념사업회가 조직된다(玄吉彦 1987: 220~221).

70년대 유신체제 아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오생근의 지적은 크게 빗나간 것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70년대 ‘국난극복의 국민정신 함양’이란 대의명분을 내세워 박정희 정권은 수많은 기념비를 세웠고, 그를 통해 유신체제를 합리화하려 한 측면이 있었다. 현길언의 『不妊時代』

에는 이런 상징적인 대목이 있다.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 역사학과에 다니는 고 석진(高錫珍)이란 학생이, 삼별초 사적지 정화사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해 왔다. 그는, 삼별초군이 제주도에 들어온 것은 제주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침략이다. 그것은 그 결과로 몽고의 지배속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실로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제주도 사람의 손으로 그 유적지를 정화하고, 그곳을 민족수난의 극복현장으로 과대평가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玄吉彦 1987: 45).

이러한 고석진의 질문에 하타다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 하타다에게 삼별초는 순수한 민족의식에서 몽골에 저항하기 위해 제주도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했으며, 그렇기에 하타다는 진심으로 ‘항몽순의비’ 앞에서 합장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몽골에 저항한 삼별초군을 ‘충신’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토벌하기 위해 고생하다 죽은 고려군은 ‘역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제주도에서 삼별초의 입거를 환영한 사람들과 반대한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달랐던 것일까?

하타다는 『원구』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짚어보지 못했다. 이는 하타다의 속죄의식이 가져온 한계라고도 볼 수 있다. 하타다가 조선인의 저항적이고 주체적인 역사를 그려냄으로써 일본인의 조선관을 개선하고자 하면 할수록, 그는 ‘일본 대 조선’이란 이분법적 틀에 구속될 수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 하타다는 제주도 사람들 입장에서 삼별초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도 없었다. 그렇기에 하타다는 삼별초의 마지막 항쟁지로서 제주도를 인식했고, ‘항몽순의비’ 앞에서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두 손을 모았던 것이다. 우리는 하타다의 인식과 태도를 닦하기 전에 한국에서 삼별초의 항쟁을 제주도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볼 일이다. 제주도 역사는 오키나와 역사가 그러하듯이, ‘한국’ 혹은 ‘일본’이라는 일국(一國)중심적 사관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700년이란 시간을 넘어 한·일 두 나라에서는 몽골의 고려지배와 여·몽골연합군의 두 번에 걸친 일본침공(원구)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두 나라의 역사교과서의 기술은 물론 각지에 세워진 기념비들은 각기 몽골침략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전승하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몽골침략과 관련해 한국은 제주도에 ‘항몽순의비’를 세웠고, 역사교육에서는 삼별초의 항쟁을 저항의 역사로 가르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역사교육에서 두 번의 몽골침공을 ‘원구’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고, 몽골의 침공을 받았던 후쿠오카에서는 ‘원구사료관’과 ‘이키노마츠바라원구방루(生之松原元寇防壘)’를 통해 그 역사를 전승하고 있다. 그리고 이키섬에는 무쿠리고쿠리(ムクリコクリ)⁵⁾라는 나무 인형이 있다. 이것은 몽골군과 고려군을 본떠 만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700년 전 원구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무섭고 잔혹한 일로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몽골제국의 확장은 한·일 두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대륙의 지배와 동서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그 속에서 고려와 일본은 각각 편입과 이탈이라는 다른 길을 걸었고, 그 결과 두 나라는 강한 적대적 긴장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몽골제국의 고려 침략과 일본 침공 모두 세계사적 틀, 특히 동아시아라는 틀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원구는 일본에게

5) ‘무쿠리고쿠리’는 이키의 방언으로, ‘무쿠리’는 몽골군, ‘고쿠리’는 고려군을 의미한다. 이 지역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를 야단칠 때 ‘~하지 않으면 무쿠리고쿠리가 올 거다!’라고 하는데, 이는 ‘무쿠리고쿠리’가 ‘잔혹하다’ 혹은 ‘심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는 미증유의 국난이었지만, 몽골제국에게는 결과에 상관없이 그다지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었다. 이렇게 원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르게 그려질 수 있다.

특히 700년 전의 삼별초의 항쟁의 마지막 거점이 되었던 제주도의 입장에서 몽골제국의 확장을 바라보면, ‘몽골 대 고려’ ‘여·몽골연합군 대 일본’이라는 틀과는 다른 역사가 보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700년이란 세월을 뛰어넘어 현대사 속의 제주도를 생각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4·3 사건’으로 대표되는 제주도의 현대사는 중앙권력이 외세였음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큰 사건이었다. 하타다는 이 사건을 알고도 침묵했던 것일까? 그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하타다가 원구를 통해 제주도를 보려고 했던 것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제주도 사람들 입장에서 제주도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그것을 한일 두 나라는 물론 세계에 알려야 한다.

2. 『원구』 너머의 제주도

제주도는 식민지의 아픔은 물론 식민지 후의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속에서 ‘4·3 사건’과 같은 깊은 상처를 입고도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해 온 땅이다. 그렇기에 제주도는 한·일 두 나라의 역사·평화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조차 제주도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1948년의 ‘4.3 사건’은 제주도에 큰 상처를 남긴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기억하고 전승하는 작업은 일부 사람들의 활동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활발하지 못하다.

한국에서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다. 일본에서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鴉の死)』 『화산도(火山島)』 같은 소설은 나와 있었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역시 1987년 무렵이다.⁶⁾ 그 뒤로 1999년 12월 1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00년 1월에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를 토대로 2003년 10월에는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왔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들 속에서 한·일 두 나라에서는 ‘4·3 사건’은 물론 일제강점기의 여러 실태를 밝히는 작업이 활발해졌다. 그 속에서 두 나라 지식인들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일 두 나라는 물론 나아가 동아시아의 과거·현재·미래를 함께 생각하기 시작했다.

현재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제주도를 관광지 이상으로 알지 못한다.⁷⁾ 물론 일본인들 중에는 책을 통해 제주도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司馬 1990; 高野 1996). 또 지역의 문화재와 전쟁 유적을 보존·활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치바현(千葉縣) 다테야마시(館山市)의 활동에서 제주도를 엿보기도 한다.⁸⁾ 나아가 알뜨르 비행장과 가마오름 지하요새와 같은

6) 일본 신간사(新幹社)의 고이삼은 1986년부터 ‘탐라연구회’를 시작해, 1988년에는 ‘4·3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4·3제주사건에 부쳐’ 블로그 『테츠의 선테이 도쿄』, <http://blog.ohmynews.com/tetsu/314899>).

7) 2010년 7월경 야마가타대학 지역교육문화학부 이문화교류코스 학생들에게 제주도를 알고 있냐고 물었다. 20여명의 학생들 가운데 남학생 1명만 손을 들었다. 그에게 제주도에 대해 뭘 알고 있는가를 물었다. 그러자 그는 “아버지가 제주도 출장을 가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라고 답을 했다.

8) 예를 들면, 치바현 가모가와시(鴨川市)에는 20여 개의 제주도 해녀의 묘지가 있다. 메이지 때부터 제주도 해녀들은 전복을 따러 일본을 방문해 아와(安房)에 살았는데 전후 그들은 가모가와시 초코지(長興院)의 묘지에 매장되었다고 한다. 다음 두 개 사이트를 참조 바람.

<http://bunka-isan.awa.jp/fileView.htm?uri=/About/item/000/294/ul0310005212.jpg>

<http://bunka-isan.awa.jp/About/item.htm?iid=272&TXSID=98daef9ed804a9dbd9f7f9c8480806f4>

일본 엇전쟁유적지와 ‘4·3 사건’에 눈을 돌려 한일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일본인도 있다. 하지만 역시 대부분의 일본인은 제주도를 잘 알지 못한다.

일본인의 제주도 인식을 나무라기에 앞서 한국인 자신은 제주도 역사와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먼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람들은 역사 시간에 삼별초의 항쟁에 대해 배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삼별초군이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침략자일 수도 있었다는 관점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역사 속에서 제주도민과 제주출신 재일교포들이 경험해온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육지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본토 사람들이 1879년 일본에 의해 강제 통합된 류큐(琉球) 왕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전쟁말기와 전후에 걸쳐 오키나와가 경험해온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와 닮아있다(김응교 2008).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일제식민지나 해방 후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제주도의 역사를 알리며, 조금씩 제주도와 육지의 온도차를 줄여가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제주도를 역사·평화교육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2005년 1월 27일 제주도는 ‘세계 평화의 섬(Island of World Peace, Jeju)’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제주도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평화 운동과 실천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행어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의 연대와 평화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이 슬로건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희생자 증언록 출판, 문학작품·영화·다큐멘터리 제작, 연구논문 발표, 일본어·영어 번역 작업 등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그동안 제주도의 탐라문화연구소와 한라일보는 공동작업으로 제주도 내 일본군 군사시설에 관해 연구해 일본군의 주둔 실태와 군사시설 구축 과정, 조선인 강제동원,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 등을 밝혀왔다. 그리고 나아가 오키나와(沖縄)와 마츠시로(松代) 대본영을 비롯한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 군사시설물을 방문·조사해가며 일본 관계자들과의 연대를 긴밀히 해왔다. 이러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가려면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와 함께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일 두 나라에서 제주도에 관련해 일제의 조선식민지 전과 후를 연결해 다룬 교육 실천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한국의 경우, 교육현장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의 실태를 다루기는 비교적 쉬운 반면 ‘제주 4·3 사건’을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4·3 사건’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교사들 또한 ‘4·3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 반면, 고등학교는 2~3학년 선택과목인 『한국근현대사』에서 ‘4·3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현장 교사들이 어느 정도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⁹⁾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4·3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¹⁰⁾ 일부 교사들을 제

9) 천재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5종 교과서에서 ‘4·3 사건’을 다루고 있다. 특히 금성출판사에서는 현기영의 ‘순이 삼촌’을 통해 ‘4·3 사건’을 칼럼 형식으로 담아두고 있어 주목된다.

10)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6종 가운데 ‘제주 4·3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5종 교과서에서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관련되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좌익 세력의 중심으로 하는 도민들이 경찰 지서를 습격하는 무장 폭동을 일으켰다. (중략) 배경에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좌익 세력의 활동, 군정 경찰과 서북 청년단에 대한 반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두산, 273쪽) ②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미군의 즉시 철수 등을 주장하는 제주도의 공산주의자와 일부 주민들은 무장 봉기하여, 도내의 관공서와 경찰지서를 습격하였다.’(금성출판사, 262쪽) ③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방해하고자 소요 사건을 일으켰다.’(중앙교육진흥연구

외하고는 ‘공산주의자’ 또는 ‘좌익 세력’이란 내용을 담고 있는 ‘4·3 사건’을 교사가 수업에서 다루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제주도에서 ‘4.3 사건’을 다루는 것이 활발한 것도 아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모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존재하고, 육지보다도 제주도에서 도리어 기억하지 않거나 말하지 않는 역사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서울 교사와 제주도 교사의 수업 방식 등을 분석하고, ‘지역의 역사화’와 ‘역사의 지역화’라는 문제를 제기한 류현종의 『두 교사의 ‘제주 4·3’ 수업 이야기』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류현종 2008).

한편, 일본에서는 제주도를 식민지 지배 실태, 전후책임 문제,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연결해 총체적으로 가르치는 수업실천은 거의 전무하다. 또한 교사들 중에 일본군이 남긴 제주도의 전쟁 유적을 통해 식민지 지배의 문제를 생각하고, 일본 안에 살고 있는 제주출신 재일교포의 역사를 통해 전후책임 문제와 ‘안으로부터의 국제화’를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뒷받침해줄 연구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60년대에 하타다가 조선사학자로서『원구』를 집필해 현장 교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듯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일제의 조선식민지 지배와 그 후 한·일 두 나라의 현대사를 총체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소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는 태평양전쟁 말기 본토결전체제를 일본 국내

소, 287쪽), ④ ‘5·10 총선거를 둘러싸고 좌·우 세력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1948년 4월 3일 500명 가량의 좌익 세력은, 단독 선거 저지를 통한 통일 국가 수립, 그리고 경찰과 극우 세력의 탄압에 저항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경찰 지서와 서북 청년회 등의 우익 단체들을 습격하였다.’(대한교과서, 256쪽) ⑤ ‘제주도의 좌익 세력들이 미군 철수, 단독 선거 반대 등을 주장하며, 도내의 경찰 지서와 우익 단체를 공격하였다.’(법문사, 256쪽).

에 한정해 가르치고 있는데, 일국사적 역사관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본토결전체제를 제주도-오키나와를 연결해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다. 서중석이 제안하고 있는 ‘제주 4·3평화기념관-난징학살기념관-오키나와현 평화기념관-타이베이 2·28기념관-광주항쟁기념관’을 잇는 ‘기억을 위한 평화순례단’도 생각해볼 일이다. 그것이 ‘희생자의 눈’으로 동아시아를 보게 하고, 동아시아 역사·평화교육의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玄基榮 2010: 28).

IV. 맺음말

지금까지 『원구』(1965)와 ‘항몽순의비’를 들어가며 하타다가 제주도를 어떻게 인식했으며, 그가 가진 한계를 넘기 위해 제주도라는 지역에 초점을 맞춰 한·일 두 나라는 물론 세계의 역사·평화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왔다.

제주도는 과거 몽골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했듯이, 지금도 여전히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하다. 특히 근현대사에서 일본과는 깊은 관계를 가져왔다.¹¹⁾ 제주도에 가면 가족이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가 지금

11) 일본 식민지 지배는 제주도민의 생활에 커다란 변화와 혼란을 가져오면서 수많은 도민들이 일본과 그 밖의 땅으로 떠났다. 1935년을 기준으로 보면, 제주도민의 4분의 1이 일본으로 건너가 살게 되면서 제주 경제는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송금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그러다가 해방 후 약 6만 명이 제주도로 귀환하게 되면서 2년 만에 제주 인구는 25%나 증가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그에 대처할 만큼의 일자리와 식량을 갖고 있지 않았다. 결국 1947년 3월 1일 테로, 1948년 4월 3일 사건, 한국전쟁이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다시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야만 했다.(유철인 2000)

도 그곳에 살고 있는 친척을 둔 사람도 있다. 그렇게 국경은 그들 가족을 갈라놓았다. 그렇기에 테사 모리스-스즈키는 이렇게 말한다.

냉전 종막이 막바지에 이르면, 이 지역의 정부는 냉전 정치로 동결되어 지금까지 남겨져온 유산들과 대면하는 일이 가능할까? 만약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면 어느 날인가? 그때는 이 몇 번의 여로가 단지 고난과 피해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일본과 코리아를 봉합하는 실이 될지도 모른다(テッサ・モーリス-スズキ 2010.2: 59).

테사의 말을 빌리면, 제주도야말로 ‘냉전 정치로 동결되어 지금까지 남겨져온 유산’을 만날 수 있는 땅이다. 테사의 소망대로 언젠가 제주도인들이 ‘일본과 코리아를 봉합하는 실’의 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남북분단의 현실을 안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체제가 막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한·일 두 나라에서 제주도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제주도가 전후 책임 및 보상과 같은 과거청산 문제는 물론 ‘육지 사람과 제주도 사람’ ‘일본인과 제주출신 재일교포’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해가며, 나아가 한반도 분단체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구축에 공헌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주도 사람들 스스로 제주도 역사를 학습해가며, 그것을 육지 사람들은 물론 세계를 향해 발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제주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좀 더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관계자들과 협력해가야 할 것이다. 역사가들은 사료를 직접 대하면서 역사를 인식하지만, 보통 사람들 대부분은 학교에서 배운 역사교육을 통해 역사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축적해온 제주도 관련 연구를 교육현장 또는 일반인에게 어떻게 전달해갈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안

의 하나로서 제주도 관련 연구자들과 현장교사들이 함께 모여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공유해가며 제주도를 알리는 교재를 개발해갈 것을 제안해본다.

이는 하타다가 실천한 일이기도 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타다는 1960~62년에 걸쳐 이진우 소년의 구명운동을 하면서 일본인의 조선관이 조선사 연구만으로는 개선할 수 없음을 절감했다. 그래서 조선사학자로서 누구보다도 일찍이 조선사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교사들과 교류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1965년 『원구』를 간행했던 것이다. 『원구』는 하타다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특히 학생들의 왜곡된 조선관을 개선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던 현장교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하타다가 일본인의 조선관 개선을 위해 ‘연구와 교육’을 잇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하타다의 『원구』(1965)가 그 뒤 역사학계에서 어떻게 계승·발전되었는가, 700년 전 ‘원구’ 이야기가 근세와 근대에 일본인의 조선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항몽순의비’와 같은 기념비가 역사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제주도와 오키나와를 한·일 두 나라의 역사·평화교육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등을 향후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고길희(2005), 『마산에서 태어난 일본인 조선사학자 하타다 다카시』, 지식산업사.
- 고길희(2009), 『旗田巍と『朝鮮史』(1951年) -『人間のない歴史』を超えて-』 韓國日本近代學會 『日本近代學研究』 第25輯.
-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두산, 금성출판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대한교과서, 범문사).
- 고이삼, '4·3제주사건에 부쳐' 『테츠의 선데이 도쿄』.
<http://blog.ohmynews.com/tetsu/314899>.
- 김응교(2008), 『오키나와·그로테스크 리얼리즘·메도루마 순』 『계간 제주작가』 여름호.
- 류현종(2008. 8. 8), '두 교사의 '제주 4.3' 수업 이야기- '기억 문화' 관점을 통한 다문화교육의 성찰-'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문.
- 吳生根(1987), '해설-역사적 삶과 진실에의 의지-' 玄吉彦 『不妊時代』 전예원.
- 유철인(2000) 『제주 사람들의 생활세계에서의 '일본'』 『한국문화인류학회』33-2.
- 旗田巍·이기동역(1983), 『일본인의 한국관』 일조각.
- 현기영(1979), 『순이 삼촌』 창비.
- 玄吉彦(1987), 『不妊時代』 전예원.
- '함몽순의비 제막식'(출처: 대한뉴스 제1188호), 1978년 6월 9일.
http://film.ktv.go.kr/pop/movie_pop.jsp?gbn=DH&mediadtl=20843&mediaid=10162&page=2&quality=W&srcgbn=KV 참조.
- 金石範(1983), 『火山島』文芸春秋.
- 金陸勳(2006), 『高麗人が見たモンゴル帝國と世界』歴史教育者協議會(日本)・全國歴史教師の會(韓國)編『向かいあう日本と韓國・朝鮮の歴史 前近代編 上』青木書店.
- 高野史男(1996), 『韓國濟州島-日韓をむすぶ東シナ海の要石-』中公新書
- 高吉嬉(2001) 『<在朝日本人二世>の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 旗田巍と朝鮮・日本』 桐書房.
- 司馬遼太郎(2009) 『街道をゆく28(新裝版) 耽羅紀行』 朝日文庫.

徐仲錫(2010),『濟州四・三』の歴史的意義と今日の意味』玄基榮『濟州島四・三事件 記憶と眞實』新幹社.

千葉縣鴨川市長興院にある濟州島海女(チャムス)墓地.

[http://bunka-isan.awa.jp/fileView.htm?uri=/About/item/000/294/
ul0310005212.jpg](http://bunka-isan.awa.jp/fileView.htm?uri=/About/item/000/294/ul0310005212.jpg)

[http://bunka-isan.awa.jp/About/item.htm?iid=272&TXSID=
98daef9ed804a9dbd9f7f9c8480806f4](http://bunka-isan.awa.jp/About/item.htm?iid=272&TXSID=98daef9ed804a9dbd9f7f9c8480806f4)

テッサ・モーリス＝スズキ(2010.2),『日本の植民地主義、移民、他者恐怖－3つの旅路－』同志社大學『社會科學』제86호.

旗田巍(1951),『朝鮮史』岩波全書.

旗田巍(1965),『元寇』中央公論社.

旗田巍(1969),『日本人の朝鮮觀』勁草書房.

編修代表旗田巍・朝鮮史研究會編(1976),『朝鮮の歴史をどう教えるか』龍溪書舍.

旗田巍(1983),『朝鮮と日本人』勁草書房.

旗田巍[對談集](1992),『新しい朝鮮史像をもとめて』大和書房.

玄基榮(2010),『忘却に抵抗する精神』濟州島四・三事件を考える會・東京『濟州島四・三事件 記憶と眞實』新幹社.

藤塚明彦(2006),『東アジアのなかのモンゴル』,歴史教育者協議會(日本)・全國歴史教師の會(韓國)編『向かいあう日本と韓國・朝鮮の歴史 前近代編 上』青木書店.

藤野達善(1976),『アジア的視点から『元寇』を教えて』,編修代表旗田巍・朝鮮史研究會編『朝鮮の歴史をどう教えるか』龍溪書舍.

歴史教育者協議會(日本)・全國歴史教師の會(韓國)編(2006),『向かいあう日本と韓國・朝鮮の歴史 前近代編 上』青木書店.

Abstract

Takashi Hatada and “Genko”

Ko, Kil-Hee*

Takashi Hatada(1908~1994) tried to pay back the debt he owed to Korea by improving Japanese's perspective on Korean history as a Japanese historian in postwar Japan. As a result of this, he gave had a big influence on korean history and korean history education in Japan . This study focuses on his book "Genko(Mongol Invasions of Japan)"(1965) to consider Hatada's perspective of Jeju, the Korean islan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following: first, to clarify the significance and the limitations of "Genko"after examining the contents of "Genko" that relates to the resistance of 'Sambyeolcho'(the army of Goryeo to resist Mongol invasion) and Jeju island; second, to reconsider the meaning of "The Monument of self-immolation to protect Mongol invasion to Goryeo" and 'Sambyeolcho' to Jeju people by focusing on the photograph of Hatada showing respect in front of the monument; third, to seek the possibility of how Jeju history can contribute to world history and peace education, in addition to contributing to Korea and Japan relationship, by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contemporary history of Jeju island in order to go beyond Hatada's studies.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will help develop new perspective

* Associate Professor, Faculty of Education, Art and Science, Yamagata University.

on Korean history and Korean-Japanese relationship from the regional history of Jeju Island, and will provide Jeju island the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the history and peace education of Korea and Japan, and the world as well.

Key Words

Takashi Hatada, Sambyeolcho, Jeju island, History and Peace Education

교신 : 고길희 〒990-8560 日本國 山形市 小白川町 1-4-12
山形大學 地域教育文化學部
(E-mail : kilheeko@hanmail.net 전화 : 023-628-4397)

논문투고일 2010. 12. 15.

심사완료일 2011. 02. 19.

게재확정일 2011. 02. 21.